

# 탄생부터 중년까지, 강물 따라 출렁거린 잠수교

이영천 | 작가



1976년 7월에 준공된 잠수교. 한강은 준설 중이고 강남 아파트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역사박물관

잠수교는 시민 편의에서 탄생한 다리가 아니다. 한강을 통제·관리·지배공간으로 여겼던 시대의 산물이자, 당시 권력의 인식이 만들어낸 다리다. 군사적인 필요와 구상에서 출발했다. 군란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이라선 지 늘 전쟁을 염두에 두었고, 과도한 우려와 위협에 사로잡혔었다. 이런 인식을 발판으로 서울을 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전쟁의 실수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개전 초, 한강철교·한강대교·광진교를 폭파했던 ‘실패한 작전’에 스스로 포로였음이 분명하다.

잠수교는 최대로 간소화한 교량이다. 건설의 시급성과 부족한 예산도 고려 요소였겠지만, 무엇보다 폭격에 파괴되어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구조여야 했다.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다. 수면에 바짝 붙은 저위 구조, 홍수 시 침수를 감수한 수월교(水越橋)로 경간은 고작 30m였다. 양옆의 안전 난간마저 생략해버린, 단순 형식이다. 그랬으니 미관이나 상징성을 고려할 까닭이 있었을까.

이런 제원은 도시발달이나 시민의 생활 인프라라기보다, 즉흥적인 상황 대응형 군사시설에 가까웠다. 최우선으로 용산 주둔 미군을 고려했음 직하다. 잠수교가 놓인 위치가 이를 설명하는 증언자다. 유사시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가장 빨리 후퇴 가능한 축선 상에 놓였다. 이 교량을 순수한 교통편의 시설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강북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고속버스 터미널을 어렵사리 한군데로 모아 반포로 이전한 게 명분이라면 하나의 명분일 뿐이다. 잠수교는 도시가 강을 건너기 전에, 권력의 염려가 먼저 강을 건너려고 만든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1982년 6월에 준공된 반포대교. 한강엔 준설 흔적이, 남쪽에서 바라본 남산이 선명하다. ©서울역사박물관

### 상부에 얹힌 또 다른 다리

1980년대 서울은, 인구보다 자동차 증가세가 가파른 도시였다. 1986년 50만대에서 1990년 100만대로 증가한다. 더불어 철도와 버스의 대중교통체계에서 자동차 위주의 도로교통 체계로 급격히 재편된다.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주된 교통수단을 무엇으로 재편하느냐였다. 많은 도시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서울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 체계를 선택했다. 그만큼 도시가 급격히 팽창해 왔다. 문제는 체증이다. 제아무리 도로를 공급한다 해도 교통체증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나중 '수요관리'라는 교통공학 도구를 그래서 도입한다.

이런 체계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었다. 도시행정과 건설사, 자동차회사가 유도해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교량은 풍경과 사람, 지역을 잇는 편리가

아니라 자동차 교통처리시설로 변모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잠수교는 한계가 농후했다. 오히려 도로교통 방해 시설에 가까웠다. 물에 잠길 수 있는 교량은 결코 간선이 될 수 없었다. 그나마 쓸모는 있었을까. 살아남은 게 용하다. 해결 방식이 상징적이다. 없애지 않고 넓히고 덮었다. 예기치 못한 도시팽창에 당황했을까. 군사 목적으로 놓인 교량의 효용이 도시팽창으로 급격히 한계에 도달했다.

1982년 반포대교가 상부에 얹힌다. 낮고 단순하던 잠수교가 가려진다. 반포대교 연결로가 여러 가닥으로 뻗어간다. 대량의 교통량으로 반포대교는 번잡하기만 하다. 잠수교는 그늘로 내려앉는다. 기술 개선이 아니다. 교량에 위계가 지워지는 장면이다. 군사형 토목 구조물 위에 팽창하는 도로교통 체계가 올라탄 순간이다. 물리적 변형이자 강제된 위계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잠수교가 전면에서 물러나 보조 시설로 전락한다.

### ‘보여 주는 무대’가 된 한강

잠수교가 들어선 1976년의 한강을 그려본다. 곳곳에 제방이 쌓여 매립이 이뤄지고, 제방 위로 도로가 생겨난다. 금빛 모래에 하얀 갈매기 날아들던 백사장이 급격히 준설되어 사라지는 중이다. 쌓인 제방으로 규격화한 강폭에, 한강은 마치 성형외과를 갖 나온 여인의 얼굴 같다. 여기저기 아파트가 한강을 가려 키재기하고,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한강을 제집처럼 누비고 있다. 이른바 1960~70년대 「한강 개발」의 실체다.

1980년대 권력은, 한강을 아직 덜 성형된 여인으로 보았음이 분명하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메스를 가한다. 이른바 「한강종합개발사업」은 한강의 면모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버린다. 제방 위 강변도로가 도시고속도로로 변해, 강으로 접근을 차단한다. 잠실·신곡수중보로 수위를 묶고, 대규모 준설을 강행한다. 모래 대신 맨땅이 둔치를 채운다.

하수처리장을 만든 건 그나마 성과일까. 흐르던 한강이, 갇힌 호수로 전락한다. 즐기고 적시는 강물에서, 먼 발치로 지나며 쳐다보는 강물로 변신한다. 과정에서 재원 조달과 집행 방식, 자원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군사 정권에게 재갈이 물리고 만다. 그나마 남은 모래를 파내 공사비 1,962억을 충당했다. 당시에도 정권의 행태에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권으로선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릴 명분이 필요했다. 이미지 하나가 제시된다. 한강 유람선과 수상 관광이다. 콘크리트로 규격화한 강의 얼굴은 뒤로 감춰진다. 건전가요(?)로 포장된, 유람선 떠다니는 한강 풍경이 새 얼굴로 등장한다. 이 연출에 충실한 배우 역할을 맡아야 했던 한강에 유일한 걸림돌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잠수교다. 유람선이 지나갈 「형하고(衡下高)」가 문제였다. 처음 만들 당시 빈도가 낮은 배의 통과를 위해 경간 30m의 상판 2곳을 기계를 써서 들어 올리던 ‘승개



한강 유람선이 통과 가능한 형하고를 확보하려, 잠수교 중단선형이 마치형으로 높아졌다. ©이영진

(昇開) 장치'와는 차원이 달랐다. 여하한 유람선이 통과 할 높이가 필요했다. 잠수교의 중단선형이 그래서 바뀐다. 유람선이 지날 곳을 들어 올려 아치 모양의 상판으로 변형된다. 잠수교 중단선형은 당시 권력이 밀어붙인 과도한 환상이 남긴 흔적인 셈이다. 물이 넘치도록 낮게 설계된 군사용 교량은, 이제 연출된 수면 위를 가로지르도록 몸체마저 바뀌어야 했다. 한강의 본질보다, 시민의 안전보다, 강을 지배할 수 있다고 여긴 한시적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가공 당하고 있었다.

### 거세된 기능에, 선전만 남은

규격화한 한강의 얼굴이 무표정하다. 것처럼 한강을 대하는 권력의 시선도 한결같았다. 되살릴 생각이나 복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로지 그들 입맛에 맞는 상징과 이미지 덧씌우기에 바빴다. 따라서 정책도 이미지를

통한 선전과 희화화로 기울어 갔다. 가장 먼저 선전물이 들어섰다. 이벤트와 경관 연출이 강조되었다. 필요성과 효과를 두고 논쟁을 낳은 사업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포대교와 잠수교 역시 도구로 소비 당했다. 보행·조명·행사 이벤트가 덧씌워져 무대 연출의 도구로 되었다. 다리의 고유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가 최우선이었다. 그 결과 다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보다, 오락과 선전이 강조된 표면적 활용 도구로 전락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강은 더는 '흐르는 강'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보여주기 좋은 갠 강물, 불꽃놀이의 무대, 덧칠된 이미지로 재구성되었다. '홀려야 하는 강'의 본성이나 '순환'이라는 생태적 맥락보다, 카메라에 잡힌 장면과 풍경이 전면에 드러났다. 통제와 관리 대상에서, 연출과 분장의 대상으로 한강 성격이 돌아갔다. 문화는 사회의식 수준에 맞게 짓는 법이다.

잠수교 위로 반포대교가 지난다. 다리 한가운데에서 '달빛 무지개 분수' 설비를 볼 수 있다. ©이영천



빛을 상징한다는 인공 섬이 한강에 떠 있다. 셋이라서 '세빛섬'이다. ©이영천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는 이런 희화화의 상징과도 같았다. 세계 최대급 교량 분수라는 수식과 야간 쇼로 도시 홍보를 노렸지만, 그게 한강의 본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두 고개를 가우뚱했다. 수질 정화나 생태계 보전은 당연히 다른 세계의 일이었다. 뿔이 오르는 일곱 빛깔 분수가 소비되고, 안전하게 강을 건너야 할 교량이 분수대로 축소되었다. 본질보다 연출 소품으로 소비되었다. 세빛섬은 상징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평가가 엇갈렸다. 문화시설이라는 화려한 선전에도, 강물에 등등 뜬 애물단지 조롱받았다. 이게 시민들 삶은 물론 깨끗해야 할 한강과 무슨 연관이 있던 말인가. 도시고속도로에 갠 한강이 다른 표정을 지으라고 강요된 순간이다. 한강이 겪는 고통의 현재다. 생활 터전이나 생태 공간으로 더불어 살아갈 바탕을

먼저 마련할 순 없었을까. 천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을, 우리는 너무 오래 대상으로만 취급해 온 건 아닐까. 소비와 선전보다 삶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강으로 제발 되돌려 놓기를... 반강제로 성형된 한강이 박제화되었다. 한강은 그러나 결코 멈춰선 적이 없다. 생태순환과 재자연화, 사계절 시민이 맘껏 유영하는 강물, 전혀 다른 한강으로 되돌아갈 힘을 지금도 남몰래 축적하고 있다. 문제는 강을 대하는 시선이다. 그간의 태도로는 어렵었다. 무엇보다 호수처럼 갠허버린 한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 순환하는 생태의 보고로 복원하는 일, 그 첫 단추가 무엇일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은 강의 복원력에 모든 걸 내맡기자. 잠수교가 마치 낮은 운명으로 태어났듯이 말이다. 